

‘실종아동 찾기’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지문 사전등록제·코드 아담’ 무용지물 범죄 수법 고도화...시스템 한계 드러나

광주·전남 아동과 지적장애인 실종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 안전망은 미흡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실종 현황(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은 7,712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2,546명 이어 지난해는 2,575명으로 나타났다. 3년간 미 발견자도 32명에 이른다.

이 중 18세 미만 아동은 2016년 1,377명 이어 2017년 1,360명, 지난해에는 1,238명으로 50%를 차지했다. 지적 장애인도 2016년 610명,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619명으로 전체 25%를 차지했다. 여기에 미발견자 가운데 90%가 아동과 지적장애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종 신고 기간 일부는 장기간 생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실종자를 찾는 시스템은 ‘지문 사전등록제’와 ‘코드 아담’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실종아

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7년 차에 접어들어 현재까지도 아동과 지적장애인의 지문 사전등록률은 현저히 낮다.

실제 전남의 경우 지문사전등록 대상자는 총 35만1,356명에 달한다. 하지만 지적장애인대상자 1만8,304명 중 24%에 해당하는 4,540명이 등록했다. 아동들 또한 전체 29만5,837명 중 15만9,533명(53%)이 신청했다. 광주 지역도 지적장애인 대상자 6,703명 중 2,825명(42.1%), 아동도 23만 42명 중 55%에 해당하는 14만 2,195명이 등록했다.

사전지문 등록만으로 실종자를 찾는 시간은 평균 1시간 미만인 반면 등록하지 않은 경우 평균 56시간이 넘게 걸린다.

그러나 지문사전등록제가 의무화가 아니어서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 특히 2014년 7월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일명 ‘코드 아담’을 도입했지만 이 또한 무용지물이다.

코드아담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

아동 신고가 접수되면 10분간 출입을 통제하고 수색한다. 백화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등이 실종자 발견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야산 등지에서 발견됐을 경우 적용

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 수법이 고도화돼 실종아동이 늘고 있어, 현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애인부모회 관계자는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있는지 시민들에게 홍보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실종아동을 찾는 골든타임이 실종 후 48시간인데, 그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적십자 구호품 정비

6일 오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들이 지사 구호창고에서 태풍 및 수해재난 이재민들 대상으로 신속한 구호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담요, 구호의류, 비누, 수건, 면도기 등 13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물품을 점검, 정비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25~33	흑산도	24~29
담양	25~33	구례	24~32
화순	25~33	곡성	24~32
영광	26~32	완도	26~32
함평	25~32	강진	25~32
무안	25~31	장흥	25~32
영암	25~32	해남	24~32
진도	25~31	고흥	25~31
신안	26~32	보성	24~31

일출 05:46 일몰 19:31
월출 12:22 월몰 23:45

목포: 만조 06:50 19:22, 간조 11:54 --:--
여수: 만조 01:18 13:58, 간조 07:23 19:55

문의: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실외기 폭발’ 목포 아파트 화재 가재도구 모두 태워...1명 부상

목포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입었다.

6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10분께 목포시 옥암동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고 47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주민 1명이 연기를 들이마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중이다. 생명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폭발음이 났다는 주민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목포=김동균 기자



지난 5일 밤 11시 10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15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목포소방서 제공

대중교통 이용률 등·하교 가장 높다

광주·전남연구원 현황 조사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등·하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광주·전남연구원의 대중교통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 목적은 등·하교비율(광주 24.8%·전남 30.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출·퇴근, 쇼핑, 여가 순으로 확인됐다. 전국 통계에선 ▲출·퇴근이 27.3%로 가장 높고 ▲등·하교 20% ▲쇼핑 16.5% ▲여가 15.4% 순이다.

일주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횟수는 광주 경우 ▲5회 이상 10회 미만인 40.7%로 가장 높았으며 ▲1회 이상 5회 미만(39.0%) ▲10회 이상 15회 미만(14.0%)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5회 미만(47.7%)이 가장 많고 ▲5

~10회(39.5%) ▲10회 이상(10.6%) 순이다.

광주는 대중교통 환승 방식이 ‘버스와 버스’ 간 66.6%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버스-지하철’ 간 환승은 30.3%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경우 지하철 노선이 없어 버스 노선 간 환승이 100%로 나타났다. 환승에 걸리는 시간은 광주가 ▲10~20분(46.9%)이 가장 많고 ▲20~30분(21.1%) ▲10분 미만(20.4%) 순이다. 전남은 ▲10분~20분 48.9% ▲10분 미만 21.5% 20분~30분 18.1%다.

월간 이용 금액은 광주는 ▲4만~6만원 33.3% ▲2만~4만원 27% ▲2만원 미만 15.1%, 전남은 ▲2만~4만원 44.0% ▲4만~6만원 33.3% ▲6만~8만원 9.9%이다. /황애란 기자

‘6·25태안사작전’ 희생 경찰 위로

민감률 경찰청장 전몰경찰관 위령제 참석

전남지방경찰청은 6일 민감률 경찰청장이 곡성 태안사를 방문해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싸웠던 전몰경찰관의 넋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소재 태안사 경찰충혼탑에서 ‘제 69주기 태안사 작전 전몰경찰관

위령제’가 개최됐다. 위령제엔 민감률 경찰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군수·유가족·참전동지회·곡성군 기관 단체 관계자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민 청장은 추도사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

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태안사작전 전몰경찰관 위령제는 1950년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태안사 일원에서 곡성지역을 사수하기 위해 북한군과 격전 중 전사한 경찰관 48명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당시, 곡성전투경찰대는 북한군 일부가 남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삼진강 상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매복 작전을 통해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민 기자

광주·전남 9일째 폭염...태풍 영향 10~60mm 비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리던 폭염특보가 9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일 밤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더위가 풀릴 전망이다.

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

와 전남지역에 내리던 폭염주의보가 9일째 이어지고 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3도 이상을 기록하며 무더위가 지속됐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FRANCISCO)의 영향권에 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오는 7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10~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태풍의 진로에서 벗어난 전남 서해안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김종찬 기자

공기청정기 전문 대표기업 DK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는 물론, 탈취까지 환경에 맞춰 진화한다

mini air

공기청정기와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로!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플라즈마 더블케어로 한번 더!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형, 중형, 대형 공기청정기 제조 및 A/S | 문의 1544-1154 | www.e-dk.co.kr